

#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퇴행과 경제 혼란

닐란타 일랑가무와(Nilantha Ilangamuwa)

스리랑카 가디언지 편집자

저널리스트이자 스리랑카 가디언지 편집자이다. 이전에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이후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 통합과 화해를 위한 사무국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일했다.

#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퇴행과 경제 혼란

닐란타 일랑가무와  
스리랑카 가디언지 편집자

스리랑카는 경제적 어려움과 거버넌스 약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침식으로 악전고투 중이다. 선거 연기와 예산 부족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4년을 눈 앞에 두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포용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스리랑카는 정치적 실패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와 같은 불행은 스리랑카에만 국한되지 않고, 번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의 30년 동안 지배층은 체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훼손해왔다. 타밀 무장 단체와 정부 간의 내전과 신할라족의 무력 적대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심하게 무력화하는 권력에 굶주린 정치인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민주적 규범의 침식의 토대가 치밀하게 마련되었고, 2009년 5월에는 장기간의 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남긴 우선순위의 왜곡이 벌어졌다. 설명하자면, 집권 여당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각종 부정 행위에 빠져들었다.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구조조정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에 이르렀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횃불이었던 스리랑카의 자랑스러운 유산은 크게 무너지고 만다.

## 최근 정치 지형

1977년 이후 정부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문화적 정서를 뻔뻔하게 조작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회피한 역사적 악행의 메아리가 권력의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때 자유를 촉진하던 문화적 헤게모니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권리와 자유의 침식을 숨겨주었다. 법을 실

행하는 자과 법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위 사이의 괴리는 권위주의의 온상이 되었으며, 이는 법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뿌린 사회 불화의 씨앗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리랑카는 정적에 대한 체계적 탄압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1978년 헌법이 도입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탄생하면서 탄압의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2010년 9월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삼권분립이 무너진 시스템은 정치 개혁의 희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 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내부 위기에 직면했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세력에 의해 개혁 시도는 좌초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2019년 새 정부는 대규모 위기와 씨름하다가 국민 시위가 진행 되는 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임한 후 2022년 7월 20일 의회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선출된 라닐 위크레마싱헤(Ranil Wickremesinghe)는 경제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화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지지부진과 의심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거버넌스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2023년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지방선거가 연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제도적 위기에 빠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4월 25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지 않아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치적 책략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선거지연은 계산된 미루기 행위로 인식한 국민과 정당 모두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2023년 5월과 6월에 북부 및 동부 지역을 포함한 4개 주의 주지사 임명은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17년부터 지방 의회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헌법 제13조에 명시된 지방분권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구시대적인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대선과 총선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정치 지형이 젠더 불균형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여성은 의회에서 5.8%, 지방 자치 단체에서 1.9%에 불과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를 기치로 내건 정부는 2023년 3월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고 국가 여성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성 포용성을 향한 훌륭한 발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물론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문제로 얼룩진 스리랑카 사회라는 캔버스에 대한 단순한 붓질놀림에 불과해 보인다.

## 개헌

2022년 10월 21일, 스리랑카 의회는 제22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스리랑카 역사에 중요한 한 장을 장식했다. 나라를 뒤덮고 있는 정치 불안과 경제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이번 개헌은 변화의 신호탄이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집단적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정치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산물인 제22차 헌법 개정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반부패 조치 강화, 사법부와 공무원의 독립성 보호, 국가 권력에 대한 본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이다. 그 핵심은 독립 위원회에 주요한 직에 임명할 수 있는 '적합하고 적절한 인물'을 식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헌의회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 혁신적인 개정안은 정치 영역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제 대통령, 내각, 국회는 의회의 감시를 받게 된다. 과거 자율 기구였던 15개의 운영위원회와 감독 기관은 이제 국민의 대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이 개헌이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라자팍사(Rajapaksa)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닐 위크레메싱헤(Ranil Wickremesinghe)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권력을 지켜주었던 동맹세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산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스리랑카 의회 내 다양한 파벌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

## 경제 위기

그러나 정치적 변화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스리랑카는 경제 위기에 압도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불안정한 해외 차관에 의존해온 결과로 지속 불가능한 공공 부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에 실패한 스리랑카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외환 부족으로 필수품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혼란은 인플레이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 등 압도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율이 2021년 13.1%에서 2022년 말에는 2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위축의 쓴 맛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9.2%, 2023년에는 4.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경제 위기가 단순히 팬데믹의 부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보다는 오랜 기간 굶아 터진 경제 구조와 관리 정책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결과이다. 수출 시장의 경쟁력 약화, 비합리적인 중앙은행 정책, 환율

## 화해와 전환적 정의

조작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재정 불안정의 핵심은 정부 수입의 감소와 부채 부담의 증가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2019년 잘못된 세금 감면과 맞물리면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무려 110%에 달하고 있다. 경제 심연의 그림자 속에서 국회 소위원회 보고서에도 암울한 그림이 담겨있다. 2022년 6월 말에는 공공부채가 국민총생산의 122%에 달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은 스리랑카가 벼랑 끝에서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끔찍한 시나리오 속에서 2023년 3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하여 스리랑카의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48개월 확대신용제공(Extended Fund Facility)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자금 지원의 조건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보다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 소득세율을 30%로 인상하고, 세금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어려운 과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켜 사회 불안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과거의 유령, 특히 2009년에 종결된 내전 당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화해의 의지를 표명했다. 역사적 불의의 어두운 구렁텅이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할 진실 규명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자문 위원회가 소집되어 필요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시민 사회, 노동조합, 타밀 정치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내각에서 승인한 진실과 화해 메커니즘의 임시 사무국 설립은 치유 과정을 밟아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다.

그러나 화해의 수사가 화려하지만,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회의적이다. 보고된 바와 같이, 협의는 피해자, 피해자 단체, 인권 옹호자, 전환기 정의 전문가 등 중요한 목소리가 누락된 채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는 성스러운 여정은 진정한 협의를 통해 형성된 신뢰, 즉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사회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쌓은 토대 위에서 시작된다. 진실 규명 과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변함없는 지지와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 강력한 권고안 이행이 필요하다. 정의의 신성한 공간에서 피해자들은 두려움의 굴레에

## 결론

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미 있는 참여의 합창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많은 국가들이 스리랑카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거버넌스, 투명성, 책임성에 뿌리를 둔 국가회복은 분쟁의 유산, 부패, 권력 집중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경제 개혁에는 정치적 자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제안된 진실위원회를 포함한 진정한 화해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 지속적인 정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소망을 실현시켜야 가능하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며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임명 및 해산, 총리 해임, 최소한에 불과한 견제 장치 등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강력한 거버넌스 복원의 어려움은 1978년 헌법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이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집행 가능한 법이 필요하다. 부패 척결은 단순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스리랑카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열쇠다. 개혁은 경찰, 검찰, 독립적인 사법부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거버넌스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스리랑카는 경제적 분열, 사회 불안,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점에 치달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개혁에 대한 주장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진정한 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스리랑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의, 그 정의에 대한 의지에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2024년, 스리랑카는 기로에 서있다.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정신은 지금 부활해야 한다. 민주진영 국가로서의 뚜렷한 위상을 회복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 SRI LANKA'S DEMOCRATIC CROSSFIRE AMID ECONOMIC TURMOIL

Nilantha Ilangamuwa

Sri Lanka grapples with a democratic erosion driven by economic challenges and governance weaknesses. Delayed elections and shortages intensify the crisis. As 2024 approaches, questions arise about navigating democratic milestones amid economic uncertainty. A vital need exists for comprehensive reforms, addressing economic issues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to renew the commitment to inclusivity and democracy.

SRI LANKA, Asia's oldest democracy, is at a critical juncture with democratic principles eroding amid political malfeasance. This disturbing trend, not unique to Sri Lanka, diminishes the essential qualities of thriving democracies.

For nearly three decades, the ruling class has systematically undermined the fabric of society. Civil conflicts between Tamil armed groups and the state, along with armed hostilities from the Sinhalese ethnic group, have been exploited by power-hungry politicians who callously disregard the fundamental tenets of democracy.

The groundwork for the erosion of democratic norms was meticulously laid, and in May 2009, despite the conclusion of prolonged conflicts, the aftermath witnessed a perverse prioritiz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governance and safeguarding democratic roots, the ruling party indulged in nepotism, cronyism, and various malpractices. Essential restructuring, crucial for the betterment of the state, fell victim to political expediency. The consequences have left Sri Lanka bankrupt, marking a significant fall from its proud legacy as a torchbearer of democracy in Asia.

## Recent Political Landscape

The echoes of historical malfeasance reverberate through the corridors of power, where governments since 1977 shamelessly manipulated cultural sentiments to consolidate

---

their grip, sidestepping laws for personal gain. Cultural hegemony, once a facilitator of freedom, has transformed into a Trojan horse, masking the erosion of rights and freedoms. The divide between the practitioner of law and the authority wielded in its name has become a breeding ground for authoritarianism—a stark reminder that those permitting power abuse in the name of law sow the seeds of societal discord.

Sri Lanka stands isolated in its systematic suppression of dissent, a sinister trend that found fertile groun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1978 constitution and the birth of the executive presidency. A system devoid of checks and balances, empowered by the 18th Amendment in September 2010, dealt a fatal blow to hopes of political reform. Subsequent governments faced internal crises, their reform attempts thwarted by the very forces meant to uphold justice. The cycle persisted, with a new government in 2019 grappling with massive crises, leading to th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amid public protests.

Mr. Ranil Wickremesinghe, elected as the President of Sri Lanka by the Parliament on July 20, 2022,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Gotabaya Rajapaksa amidst public protests against his political decisions, initiated several reforms, including economic policies, and announced reconciliation initiatives. However, the shadow of governance hangs heavily, tainted by regrettable delays and questionable decisions that pose a threat to the very fabric of democracy.

The postponed local government elections, originally scheduled for March 9, 2023, ostensibly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plunged the Election Commission and the government into an institutional crisis. Despite the Commission's efforts to reschedule the elections to April 25, the government's failure to allocate the necessary funds resulted in an indefinite postponement. This delay, perceived as a political maneuver, faced sharp criticism from both the public and the political parties, who recognized it as a calculated act of procrastination.

Amidst this political turbulence, the appointment of four provincial governors in May and June 2023, including in the Northern and Eastern provinces, raises concerns. However, the paradox lies in the suspension of provincial councils since 2017—a blatant violation of the devolution principles enshrined in the 13th Amendment, though critiques says that this is an outdated solution. As whispers of impending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24 gain momentum, the stark reality remains: the



---

## Constitutional Amendment

political landscape is marred by a glaring gender imbalance. Women represent a meager 5.8 percent in parliament and a paltry 1.9 percent in local authorities. Marching under the banner of progress, the government unveiled a National Policy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March 2023, with legislation underway to establish a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an admirable step toward gender inclusivity. However, these initiatives, while significant, appear as mere brushstrokes on a canvas stained by broader issues afflicting Sri Lankan society.

In a pivotal moment on October 21, 2022, the Sri Lankan Parliament marked a significant chapter in its history with the passage of the 22nd Constitutional Amendment. A decisive response to the tumultuous waves of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upheaval gripping the nation, this amendment serves as a beacon of change and a testament to the collective will to forge a new path.

The 22nd Constitutional Amendment, a Herculean effort to reshape the political landscape, bears immense significance. Its overarching goals include curtailing presidential powers, reinforcing anti-corruption measures, safegu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civil service, and revitalizing essential checks and balances on state power. At its core is the reinstatement of the Constituent Assembly, a sentinel tasked with identifying ‘fit and proper persons’ for key appointments in independent commissions.

This transformative amendment injects accountability into the political arena. The President, the Cabinet, and the National Assembly now find themselves subject to the scrutiny of Parliament. The 15 operating committees and oversight bodies, once autonomous, are now accountable to the voice of the people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Crucially, the winds of change ushered in by this amendment signify the diminishing influence of the Rajapaksa government. President Ranil Wickremesinghe can no longer rely on the alliances that once secured power for him. The shifting tides necessitate a new political calculus, compelling leaders to seek support across diverse factions within the Sri Lankan Parliament.

---

## Economic Crisis

Yet, even as the wheels of political change turn, the juggernaut of an economic crisis bears down on Sri Lanka. The nation grapples with the fallout of unsustainable public debt, a consequence of fiscal recklessness and reliance on precarious foreign loans. The failure to restructure the debt has left the nation teetering on the edge of financial ruin, with official reserves depleted and imports of essential goods curtailed due to a lack of foreign exchange.

The economic turmoil manifests as an overwhelming cost of living burden, with inflation soaring to unprecedented levels. The World Bank presents a disheartening outlook, projecting a rise in poverty from 13.1% in 2021 to 25.6% by the end of 2022. The bitter pill of economic contraction is anticipated to persist, with a projected shrinkage of 9.2% in 2022 and 4.2% in 2023. A World Bank report emphasizes that the economic crisis is not merely a byproduct of the global pandemic. Instead, it exposes systemic flaws in economic structure and management policies that have festered over time. The export market's diminished competitiveness, erratic central bank policies, and manipulated exchange rates have dealt mortal blows to the nation's economic vitality.

The crux of fiscal instability lies in dwindling government revenue and an escalating debt burden. The convergence of these factors, along with ill-advised tax concessions in 2019, has propelled public debt to a staggering 110%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shadows of an economic abyss, the Sub-Committee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paints a grim picture. By the end of June 2022, public debt looms ominously at a staggering 122%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 a stark testament to the precipice on which Sri Lanka teeters.

Amidst this dire scenario, on March 20, 2023,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tervenes, approving a 48-month Extended Fund Facility—a financial lifeline of approximately US\$3 billion designed to bolster Sri Lanka's economic policies and usher in reforms. However, the conditions attached to this lifeline are onerous—requiring a commitment to expand the tax base, introduce a more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 system, rais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to 30%, and curtail tax incentives. This Herculean task threatens to exacerbate the woes of the already struggling low-income groups, potentially sparking social unrest.

---

## Reconcil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The President expresses a commitment to reconciliation—a fervent pledge to address the ghosts of the past, particular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civil war that concluded in 2009. Plans are underway to establish a truth-seeking mechanism, serving as a beacon to illuminate the dark recesses of historical injustice. An advisory committee has been convened, tasked with crafting the necessary legislative framework, and consultations extend to government agencies, civil society, trade unions, and Tamil politician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im Secretariat for a Truth and Reconciliation Mechanism, approved by the Cabinet in May 2023, takes a cautious step toward the healing process.

Yet, amidst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sts a skeptical eye. Consultations, as reported, lack comprehensiveness, omitting crucial voices—victims, their associations, human rights defenders, and eminent transitional justice exper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victims’ groups, voicing deep concern,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crutinize the propose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he name of justice for the aggrieved.

In the quest of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sacred journey begins with trust - trust instilled by genuine consultations, a foundation laid in the crucible of honest dialogue with victims and affected communities. For any truth-seeking process to bear fruit, it demands not just rhetoric but a robust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 commitment fueled by the unwavering support of all stakeholders and buoyed by political will. In the hallowed space of justice, victims must not only be free from the shackles of fear but actively engaged, their voices resonating in a chorus of meaningful participation.

Many countries,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urgently call for solidarity with Sri Lanka’s recovery. Rooted in govern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covery demands commitment to addressing conflict legacy, corruption, power centralization,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True solutions require broad societal consensus, as economic reforms demand more than political capital. Within the reform tapestry, accountability is crucial. Genuine reconciliation, including the proposed truth commission, mus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asting justice, beyond symbolic gestures, fulfilling the aspirations of victims and their kin.

---

## Conclusion

Sri Lankan citizens clamor for systemic reform, desiring change despite amendments. The president's extensive powers, including cabinet appointments and dissolutions, prime minister removal, and minimal checks, persist. Challenges in restoring robust governance stem from the 1978 constitution's structural complexities, necessitating clear, comprehensive, and enforceable laws to eradicate corruption. Corruption eradication is not just a precondition; it is key to unlocking the Sri Lankan economy and ensuring political stability. Reformation must extend to the police force, the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with strict law enforcement guarding against governance erosion.

Sri Lanka faces economic strife, social unrest, and political turbulence, a culmination of decisions over time. Addressing this requires a genuine commitment to justice, as claims of government reform must go beyond rhetoric. The solution lies in a profound commitment to justice, essential for healing Sri Lanka's wounds. As 2024 approaches, with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looming amid economic crisis, the nation stands at a defining juncture. A resurgence of the democratic spirit is imperative now, echoing the need for change and the restoration of Sri Lanka's place among democracy champions.

#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퇴행과 경제 혼란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금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

12